

레디 플레이어 원 (by 어니스트 클라인)

0019

컴퓨터가 나를 깨운 시각은 해가 저물기 직전이었다. 나는 일과를 시작했다.

“일어났어!” 나는 어둠 속에 대고 외쳤다. 아르테미스한테 차인 날부터 몇 주 동안 아침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알람 연장 기능을 꺼버리고 웹이 부는 <웨이크 미 업 비포 유 고 고>란 노래를 틀도록 컴퓨터에 입력해둔 탓에 온 신경을 건드리는 그 노래를 멈추는 방법은 일어나는 것뿐이었다.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유쾌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나를 움직이게 했다.

노래가 멈추더니 햅틱 의자가 스스로 모양을 바꾸기 시작했다. 침대가 다시 의자 형태로 바뀌면서 나를 들어 올려 의자에 앉혔다. 컴퓨터는 내 눈이 적응할 수 있도록 천천히 조명을 밝히기 시작했다. 아파트 안으로 외부의 빛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한때는 하나 있는 창문으로 콜럼버스의 스카이라인이 보인 적도 있었지만 여기로 이사 온 지 며칠 만에 전부 새까맣게 칠해버렸다. 나는 창밖에 있는 모든 것을 퀘스트의 방해물로 규정하고 밖을 쳐다보며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외부 세계의 소리 역시 듣고 싶지 않았지만 아파트의 기존 방음 장치를 더 개량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바람 소리나 빗소리, 거리와 공중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어쩔 수 없었다. 이 희미한 소리 역시 방해될 때가 있었다. 어찌다 한 번씩은 눈을 감고 앉아서 시간의 흐름을 완전히 잊고 무아지경에 빠진 채 방 밖의 세계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나는 보안을 강화하고 편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아파트의 다른 부분들도 개조했다. 먼저 현관문을 장갑을 두른 최신 공기 밀폐식 에어록 전투문으로 교체했다. 사야 할 물건(음식과 휴지, 새 장비 등) 있을 때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배달부가 문 앞까지 배달해주었다. 배달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우선 복도에 설치된 스캐너가 배달부의 신분을 확인하고 컴퓨터는 배달부가 가져온 물건이 내가 실제로 주문한 물건이 맞는지 대조한다. 대조가 끝나면 외부문의 잠금이 해제되고 문이 지익 열리면서 샤프부스만 한 크기의 티타늄 에어록이 나타난다. 배달부는 소포든 피자든 가져온 물건을 에어록에 놓은 다음 뒤로 물러선다. 외부문이 지익 닫히고 저절로 잠금이 설정된다. 곧이어 스캔과 엑스레이를 비롯한 온갖 방법이 동원되어 아주 철저하게 물건이 분석된다. 내용물이 완전히 확인되면 배송 완료 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된다. 그때 내가 내부문의 잠금을 해제하고 문을 연 다음 물건을 수령한다. 다른 사람과 전혀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자본주의는 내 손 끝에 있었다. 고맙게도 정확히 내가 원하는 방식이었다.

내 원룸은 그다지 구경거리가 없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가능한 구경하는데 시간을 쏟지 말아야 했기 때문이다. 내 원룸은 가로세로 각 10미터 길이의 정육면체 모양이었다. 조립식 샤프부스와 화장실은 벽 안쪽에 들어가 있었고, 맞은편에는 자그마한 인체공학 주방이 있었다. 사실 요리를 하기 위해 주방을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끼니는 전부 냉동식품과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다. 전자레인지 브라우니 정도가 내가 요리라고 부를 수 있는 전부였다.

원룸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오아시스 이머전 장치였다. 이 장치를 장만하기 위해 동전까지 탈탈 털어야 했다. 더 새롭고 더 빠르고 더 다기능인 부품은 계속 출시되고 있었으므로 그리 변변치 못한 내 수입은 대부분 업그레이드에 쏟아붓는 형편이었다.

내 장치 중에서 가장 아끼는 보물은, 당연히 직접 조립한 오아시스 콘솔이었다. 이것은 나만의 세상을 밝혀주는 컴퓨터였다. 둥근 공 모양의 검정색 유광 오딘웨어 샷시에다 부품을 하나하나 직접 조립해서 만든 것이다. 최신 오버클럭 프로세서는 사이클 타임이 어찌나 빠른지 초능력에 맞먹을 정도였다. 또 내장된 하드디스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디지털화해

세 개씩 넣어도 될 만큼 충분한 용량을 자랑했다.

나는 하루의 대부분을 햅틱 테크놀로지 HC5000이라는 완전조절형 햅틱 의자에 앉아서 지냈다. 이 의자는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로봇팔 두 개에 매달려 있었고, 로봇팔은 각각 아파트 벽과 천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로봇팔은 의자를 네 방향의 어느 축으로든 회전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일단 햅틱 의자에 앉아 벨트를 매면 몸이 뒤집히고 빙글빙글 돌고 흔들림으로써 추락하거나 비행하는 느낌은 물론 알타이르 VI의 네 번째 위성에 있는 협곡 사이를 마하 2의 속력으로 돌진하는 원자력 로켓 썰매를 조종하는 느낌까지 온몸으로 전달되었다.

햅틱 의자는 전신 햅틱 반응 의상인 햅틱 부트수트를 입어야만 작동되었다. 이 수트는 목 아래 전신을 감싸지만 아주 절묘한 구멍이 있어 다 벗지 않아도 불일을 볼 수 있었다. 수트의 바깥쪽은 정교한 강화외골격, 즉 인공 힘줄과 관절을 통해 유저의 동작을 감지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로봇이었다. 수트의 안쪽에는 초소형 센서가 피부 전면에 달걀만큼 뽁뽁하게 부착되어 있었다. 이 센서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않는 사물을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촉각 시뮬레이션의 목적에 따라 작동 범위가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했다. 이로써 누가 어깨를 툭 치거나 정강이를 걷어차는 느낌, 혹은 가슴에 총알이 박히는 감각을 매우 사실감있게 전달할 수 있었다. (내장형 안전 소프트웨어는 실제로 내가 다치지 않도록 충격을 차단했으므로 가상현실에서 총에 맞는 느낌은 약간 주먹 한 방을 맞은 것처럼 느껴졌다.) 원룸 구석에 있는 모시워시 세탁실에는 똑 같은 수트가 한 벌 더 걸려 있었다. 이 두 벌의 햅틱 수트가 내가 가진 옷의 전부였다. 옛날에 입던 옷은 벽장 어딘가에 처박혀 먼지만 쌓이고 있었다.

양손에는 최첨단 오키아미 핸드프리 햅틱 데이터글러브를 착용했다. 특수 촉각 반응 패드가 양쪽 손바닥에 부착되어 있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물과 표면을 만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햅틱 장갑이었다.

바이저는 최신형 디나트로 RLR-7800 렉스팩스로 가상망막디스플레이 중에서는 단연 최고의 장비였다. 이 바이저는 인간의 눈이 지각할 수 있는 최고의 프레임 속도로 최고의 해상도로 내 망막에 직접 오아시스를 투사해주었다. 현실세계는 그 영상에 비하면 오히려 색이 밋밋하고 상이 흐릿한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RLR-7800은 아직 상용화된 모델이 아니었지만 디나트로사와 광고 계약을 맺은 덕분에 무상으로 지원받은 것이었다(익명을 유지하기 위해 몇 단계에 걸친 재전송 서비스를 통해 배송받았다).

어바운드사운드 오디오 시스템은 아파트의 벽과 바닥, 천장에 장착한 울트라 초박형 스피커들로 구성되어 완벽한 360도 입체 서라운드 음향 재생이 가능했다. 게다가 미울누르 서브우퍼 스피커의 성능은 어금니까지 진동이 전달될 정도로 강력했다.

한쪽 구석에 놓인 올파트릭스 향기 스탠드는 2천여 종류의 서로 다른 향을 발생시키는 기능이 있었다. 장미가 핀 정원에서 짙은 내를 머금은 바닷바람이나 매캐한 화약 냄새까지 아주 실감나게 재현할 수 있었다. 또 성능 좋은 에어컨 겸 공기청정기 역할도 했는데 나는 주로 이 용도로 이용했다. 많은 사이코들이 향기 스탠드가 있는 사람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가상현실에 아주 끔찍한 냄새를 코딩해 넣는 고약한 짓을 일삼았기 때문에 보통은 향 발생 기능을 꺼두었다가 오아시스에서 주변 환경의 냄새를 맡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만 활성화시켰다.

공중에 매달린 햅틱 의자 바로 밑 바닥에는 오키아미 런어라운드 전방위 트레드밀이 놓여 있었다(제조회사의 슬로건은 '당신이 어디를 가시든 따라갑니다'였다). 트레드밀은 가로세로 각 2미터인 정사각형으로 두께는 6센티미터였다. 장치를 켜면 어느 방향으로든 최대 속력으로 달릴 수 있었는데 절대 트레드밀 가장자리에는 닿을 수가 없었다. 내가 방향을 바꾸면 트레드밀이 이를 감지하고 구르는 표면을 조정해 언제나 한가운데에 서 있게 했기 때문이었다. 이 트레드밀은 또 경사 설정 기능이 있고 표면이 무정형인 모델이라 경사나 계단을 오르는 느낌을 아주 실감나게 재현할 수 있었다.

오아시스 안에서 좀더 ‘친밀한’ 접촉을 원한다면 ACHD(해부학적으로 인간과 똑같은 햅틱 인형)을 구매할 수도 있었다. ACHD 인형은 남자, 여자, 양성 인간 세 종류가 있었고 다양한 옵션을 추가할 수 있었다. 가령 진짜 같은 라텍스 피부라든가 속도를 정밀하게 통제할 수 있는 서보 모터로 작동되는 내골격, 가상으로 만든 근육 조직 등 사람의 상상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보조 부속과 구멍들을 추가할 수 있었다.

외로움과 호기심과 왕성한 십대 호르몬을 주체하지 못해 중간 가격대의 ACHD 인형인 햅틱 위버베티를 구매한 것은 아르테미스가 연락을 끊은 지 보름쯤 지나서였다. 나는 아방궁이라는 이름의 단독 포르노 시뮬레이션에서 몹시 비생산적인 나날을 보낸 후 수치심과 방어 본능이 한데 엉킨 감정이 북받쳐 올라온 나머지 인형을 없애버렸다. 가상섹스가 얼마나 실감 나든 그럴듯하게 미화된 컴퓨터 매개 자위행위에 지나는 않는다는 우울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이미 엄청난 크레딧을 쏟아부어 일주일을 낭비하고 이스터에그 퀘스트를 내팽개치기 직전이었다. 어두컴컴한 방에 홀로 앉아 여자 햅틱 인형과 섹스를 하지만 그래 봤자 나는 슛총각일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ACHD를 없애버리고 다시 옛날 방식으로 자위행위를 했다.

나는 자위행위는 전혀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았다. 『아노락 연감』 덕분에 자위행위가 잠을 자고 밥을 먹는 행위만큼이나 꼭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아주 정상적인 신체 기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노락 연감』 241장 87절 - 나는 자위행위야말로 인간이라는 동물에게 가장 중요한 적응이었으며 기술 문명의 토대였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틀림없이 우리의 손은 도구를 잡도록 진화되었다. 여기에는 우리의 몸도 포함된다. 사상가와 발명가, 과학자들은 보통 한 가지에 광적으로 미친 괴짜들이며, 이런 괴짜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섹스할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 이들이 자위행위로 성욕을 잠재우지 않았더라면 원시 인류는 아마 불의 비밀을 이해하지도, 바퀴를 발견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갈릴레오와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우선 딸딸이를 쳐서 (또는 ‘수소 원자로부터 양성자를 털어내서’) 머리를 맑게 하지 못했다면 절대 그런 위대한 발견에 이르지 못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쿼리 부인 역시 마찬가지다. 리튬을 발견하기 전에 자신의 은밀한 곳을 먼저 발견했을 거라고 믿어도 좋다.

할리데이의 이론 중에서 특별히 주목받은 이론은 아니었지만, 나는 이 이론이 마음에 들었다.

발을 질질 끌며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니 벽에 장착된 대현 평면 스크린이 켜지고 시스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가 구동되면서 맥스의 웃는 얼굴이 나타났다. 내가 조명을 켜면 몇 분 후에 맥스가 켜지도록 설정해두었기 때문에 맥스가 수다스럽게 말을 걸기 전에 잠시 정신을 가다듬을 틈이 있었다.

“웨이드, 조-조-좋은 아침!” 맥스는 명랑한 목소리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해가 주-주-중천에 떴어!”

시스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것은 가상비서가 생기는 것과 비슷했다. 음성 인식으로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시스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는 미리 설정된 수많은 성격 중에서 얼마든지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었다. 내 가상비서는 1980년대 후반 토크쇼와 획기적인 사이버펑크¹⁾ 장르의 드라마, 다수의 콜라 광고에 등장한 (표면상으로는) 컴퓨터 인간인 맥스 헤드룸과 같은 외모와 목소리와 행동을 가진 인물로 설정했다.

“맥스, 좋은 아침.” 나는 몽롱한 상태로 대답했다.

“좋은 밤이란 뜻이겠지, 룸펠슈틸츠크인²⁾.” 지금은 밤 7시 18분이라고 오아시스 표-표-표준

1) 1980년대부터 각광을 받은 SF 문학의 한 장르로 "사이버네틱스" + "펑크"의 합성어이다.

2) 독일 민화에 등장하는 난장이 괴물

시간으로, 수요일, 12월 30일.“ 맥스는 말을 더듬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1980년대 중반 맥스 헤드룸 캐릭터가 처음 나왔을 당시만 해도 컴퓨터 성능이 인물을 사실적으로 재현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실제 배우가(명배우 매트 플레위가) 컴퓨터 합성 인간처럼 보이도록 얼굴에 고무를 붙여 분장하고 맥스를 연기했다. 하지만 지금 모니터에서 나를 보고 웃고 있는 맥스는 시중에 나와 있는 최상급 인공지능과 음성 인식 서버루틴을 탑재한 진짜 100퍼센트 소프트웨어였다.

몇 주 전부터는 직접 만든 맥스 헤드룸 v3.4.1 버전을 사용 중이었다. 그전에 쓰던 시스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는 여배우 에린 그레이(「별들의 전쟁」과 「아빠는 멋쟁이」로 유명한 인물)를 모델로 한 버전이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집중력이 흐려졌던 탓에 다시 맥스로 바꿨다. 맥스는 귀찮게 할 때도 심심치 않게 있었지만 배꼽 잡게 웃길 때도 많았다.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역할도 충분히 잘해냈다.

화장실로 비틀거리면서 들어가 방광을 비우는 동안 맥스는 거울 위에 달린 작은 모니터에서 설새 없이 말을 걸었다. “오-오! 파-파-파이프가 새는 것 같아!”

“좀 신선한 농담 좀 찾아봐. 내가 알아야 할 뉴스는?”

“특별한 것 없어. 전쟁, 폭동, 기근이지 뭐. 네가 관심 있을 뉴스는 없어.”

“메시지는?”

“맥스는 눈을 흘겼다. “몇 개 왔어. 하지만 그 질문의 속뜻에 대답하자면, 없어. 아르테미스는 전화도 없고 메일도 없어. 어장 관리나 당하는 멍청한 놈.”

“경고한다. 한 번만 더 나를 그렇게 불렀다가는 두고 봐, 맥스. 삭제당하고 싶어 환장했구나.”

“불같은 성질하고는. 툭 까놓고 말해서, 웨이드. 언제부터 그렇게 나-나-날카로워졌어?”

“삭제해 버리겠어, 맥스. 장난 아니야. 더디 한번 계속 떠들어봐. 얼마 대령³⁾으로 다시 바뀌 버릴 테니까. 아니면 마젤 바렛의 컴퓨터 합성 목소리도 괜찮겠다.”

맥스는 토라진 듯 얼굴을 핵 돌려 디지털 라이브 월페이퍼 배경을 쳐다보았다. 색색의 선형 패턴이 움직이고 있었다. 맥스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 아픈 곳을 건드리는 것은 녀석에게 미리 설정된 성격이었다. 나는 사실 이런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 에이치와 놀던 때가 떠오르기 때문이었다. 나는 에이치와 놀던 때가 정말 그리웠다. 미치도록 그리웠다.

시선이 화장실 거울로 향했지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 볼일을 다 볼 때까지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창문을 칠할 때 왜 이 거울은 칠하지 않았는지(처음은 아니었지만) 새삼 궁금해졌다.

잠에서 깬 후 한 시간은 하루 중에서 가장 끔찍했다. 현실에서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청소라는 지겨운 일을 해야 하고 몸을 직접 움직여야 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이 시간이 하루 중에서 가장 싫었다. 모든 것이 나의 또 다른 삶, 오아시스 안에서의 삶이 거짓임을 일깨웠기 때문이다. 코딱지만 한 원룸 아파트, 이머전 장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전부 내가 종일 머무르는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고통스럽게 자각하게 했다.

“의자 집어넣어.” 나는 화장실을 걸어 나오면서 말했다. 햅틱 의자는 즉시 납작해지더니 세워지면서 벽으로 붙었고 방 가운데에는 널찍한 공간이 생겼다. 나는 바이저를 착용하고 단독 시뮬레이션인 피트니스 클럽을 로딩했다.

나는 각종 운동 기구가 죽 늘어선 최신식 대형 피트니스클럽으로 이동했다. 이 기구들은 모두 햅틱 수트를 입어야만 체험할 수 있었다. 나는 하루 운동을 시작했다. 윗몸일으키기, 복부 크런치, 팔굽혀펴기,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차례로 했다. 맥스는 주기적으로 격려의 말을 외치곤 했다. “다리 더 들고, 왜 이리 비실비실해! 지방이 타는 걸 상상해봐!”

3) 「별들의 전쟁」에 나오는 지구 방위군의 '얼마 대령'대령. 여배우 에린 그레이가 그 역할을 맡음.

나는 오아시스에 접속해 있는 동안 몸으로 하는 전투에 참가하거나 트레드밀 위에서 가상풍경을 보며 달리는 등 약간의 운동을 하곤 했었다. 하지만 햅틱 의자에 앉아서 온종일 거의 몸을 꿈쩍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게다가 우울하거나 좌절감이 밀려오면 폭식하는 습관도 있었다. 우울하거나 좌절감이 밀려오지 않는 때는 거의 없었다. 그 결과 점점 살이 찌기 시작했다. 원래부터 군살 없는 좋은 몸도 아니었기 때문에 금세 햅틱 의자에 편안하게 앉을 수도 없고 엑스라지 햅틱 수트를 편안하게 입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곧 덩치 큰 사람들을 위한 특수 브랜드의 부품과 함께 새 햅틱 장치를 사야 할 처지가 되었다.

살을 빼지 않는다면 에그를 찾기도 전에 분명 나무늘보처럼 굶어 죽으리란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즉각 결단을 내리고는 자발적으로 이 머진 장치에 오아시스 피트니스 락아웃 소프트웨어를 활성화시켰다. 거의 즉시 후회가 밀려왔다.

그때부터 컴퓨터는 내 바이탈 사인을 확인하고 하루에 소모하는 열량을 기록했다. 하루 운동 요구량을 다 채우지 못하면 시스템이 막혀 오아시스에 로그인할 수 없었다. 일을 하러 갈 수도 없고, 퀘스트도 계속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요컨대 삶 전체가 없어지는 셈이었다. 한 번 락아웃 상태가 되면 두 달 동안 해제할 수 없었다. 게다가 소프트웨어는 오아시스 계정에 연동되어 있었으므로 새 컴퓨터를 산다거나 밖으로 나가 오아시스 카페를 이용한다 해도 소용이 없었다. 로그인을 하려면 운동부터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보다 더 나를 움직이게 할 확실한 동기부여는 없었다.

한편 락아웃 소프트웨어는 내 식단도 점검했다. 매일 저칼로리 건강식 중에서만 음식을 고를 수 있었다. 소프트웨어가 온라인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문 앞으로 배달되었다. 아파트를 떠난 적이 없었던 만큼 내가 먹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음식을 더 주문하면 초과 섭취한 칼로리를 상쇄하기 위해 하루 운동량이 늘어났다. 꽤 잔인한 소프트웨어였다.

하지만 효과가 있었다. 체중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거의 흠잡을 데 없는 몸짱이 되었다. 난생처음으로 납작한 배와 복근을 갖게 되었다. 활력은 두 배로 넘쳤고 병에 걸리는 횟수가 훨씬 줄어들었다. 두 달이 지나 마침내 피트니스 락아웃 소프트웨어를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내 손에 있었지만 나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운동은 이미 삶의 일부가 되었으니까.

나는 근력 운동을 마치고 나서 트레드밀 위에 올라섰다. “아침 조깅할래. 무지개다리 트랙 부탁해.” 나는 맥스에게 말했다.

가상피트니스클럽은 사라졌다. 내가 서 있는 곳은 반투명한 조깅 트랙으로 바뀌었다. 별이 무수히 박힌 성운에 걸쳐 있는 무지개 모양 트랙이었다. 나를 둘러싼 우주공간은 어디를 보아도 거대한 고리 행성과 오색찬란한 위성으로 가득했다. 조깅 트랙은 정면으로 뻗어 있고 오르막과 내리막은 물론 가끔 나선형으로 이어졌다. 보이지 않는 안전벽이 있어 실수로 트랙을 벗어나 별이 무수한 심연으로 추락하는 일을 막아 주었다. 무지개다리 트랙은 또 하나의 단독 시뮬레이션으로, 내 콘솔 하드디스크에 들어 있는 수백 종류의 트랙 디자인 중 하나였다.

내가 조깅을 시작하자 맥스는 1980년대 음악 재생 목록을 만들었다. 첫 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을 때 나는 재빨리 노래 제목, 가수, 앨범, 발매연도를 기억 속에서 꺼내 읊조렸다. “이 노래는 <오 밀리언 마일스 어웨이>, 폴림소울, 에브리웨어 앳 원스 앨범, 1983년.” 그러고는 가사를 외워서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정확히 외운 1980년대 노래 가사가 언젠가 내 아바타의 목숨을 구해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달리기를 마치고 바이저를 벗고 햅틱 수트를 벗기 시작했다. 수트의 부속 장치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천천히 벗어야 했다. 조심조심 수트를 벗는 동안 접촉 패치가 피부에서 떨어지면서 뽕뽕 소리가 났고 전신에는 조그맣고 동그란 자국이 남았다. 수트를 다 벗

고 나서는 세탁실에 갖다 놓은 다음 깨끗한 다른 수트를 바닥에 깔았다.

맥스는 내가 좋아하는 물 온도에 정확히 맞춰 이미 샤워기를 틀어 놓았다. 수증기로 가득 찬 샤워부스로 들어가자 맥스는 알아서 내가 목욕할 때 듣는 음악을 틀었다. 존 웨이트의 <체인지>라는 노래의 도입부에 반복되는 소절이었다. 영화 「청춘의 승부」 OST, 게펜 레코드, 1985년.

자동 샤워는 옛날 기계식 세차와 비슷했다.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비눗물이 사방에서 분사된 다음 말끔하게 행귀주었다. 내 몸엔 털이 하나도 없었다. 샤워기에서 무독성 제모 용액이 섞여 나왔기 때문에 얼굴과 몸을 문지르기만 하면 되었다. 면도를 하거나 머리를 깎는 귀찮은 일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되었다. 피부가 매끄러우면 햅틱 수트가 좀 더 편안하게 몸에 달라붙는다는 장점도 있었다. 눈썹이 없는 얼굴이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금세 익숙해졌다.

행궁이 끝나자 건조기가 켜지면서 피부에 남아 있던 수분을 순식간에 말려버렸다. 나는 주방으로 걸어가 슬라이저라는 고단백 비타민 D 첨가(햇빛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서) 아침 식사 대용 음료수 한 캔을 꺼냈다. 음료수를 꿀꺽꿀꺽 마시는 동안 컴퓨터 센서가 소리 없이 이것을 기록하고 음료수의 바코드를 스캔하여 열량을 하루 섭취량에 추가했다. 아침을 가볍게 때우고 나서 깨끗한 햅틱 수트를 입었다. 벗는 것보다는 덜 까다로웠지만 여전히 제대로 입으려면 시간이 걸렸다.

수트를 다 입고 나서 햅틱 의자를 다시 펼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멈춰 서서 이 머진 장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처음 샀을 때만 해도 이 최첨단 장치는 더없이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눈에 띄었던 콩깍지가 벗겨졌다. 이 장치는 내 감각을 속여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세상에 살도록 만드는 정교한 기계 덩어리에 불과했다. 장치의 부품들은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옥죄는 감옥의 빔장이었다.

코딱지만 한 원룸 아파트의 암울한 형광등 아래에서는 진실을 피할 수 없었다. 현실의 나는 사회성이 결여된 은둔자일 뿐이었다. 대중문화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허여멸건한 오타구일 뿐이었다. 진짜 친구도, 가족도,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진정한 만남도 없이 집에만 틀어박힌 광장 공포증 환자일 뿐이었다. 그저 그럴듯하게 미화된 비디오게임이나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갈 곳 잃은 서럽고 외로운 영혼일 뿐이었다.

하지만 오아시스 안에서는 달랐다. 나는 위대한 파르지발이었다. 세계적인 건터이자 유명인이었다. 사람들은 사인을 요청했다. 팬클럽도 있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었다. 어디에 가든지(물론 내가 원할 때에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았다. 광고 모델료가 쏙쏙히 들어왔다. 사람들을 나를 찬미하고 존경했다.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 초대받는 파티에 초대받았다. 최고로 물이 좋은 클럽에 다니고 줄을 설 필요가 없었다. 나는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자 가상현실의 슈퍼스타였다. 건터계의 전설, 아니 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나는 햅틱 의자에 앉아 햅틱 장갑과 바이저를 착용했다. 신원이 확인되자 GSS 로고가 나타나면서 로그인 명령창이 이어졌다.

환영합니다. 파르지발.
암호문을 읽어주세요.

나는 목청을 가다듬고 암호문을 말했다. 말하는 속도에 맞춰 화면에 단어가 나타났다. “세상 누구도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지. 그래서 아름답지.”

짧은 정적이 흐른 뒤 오아시스가 나를 둘러싼 실재를 서서히 집어삼킬 때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